

## 日本の長期에너지需給展望

日本の総合에너지調査會는 지난 6월5일 綜合部會와 需給部會 合同委員會를 개최하여 長期에너지需給展望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通商産業성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다음은 이 최종보고서의 개요이다.

이번의 장기전망은 2010년도까지의 에너지 신 전략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이의 실현을 위한 신 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인간활동과 환경의 양립』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원자력을 비롯한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에너지절약대책 등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중에서도 원자력은 2010년도까지 설비가 배로 증가한 7,250만kW로 규모를 성장시킬 방침이 제시되어 『최대한의 도입노력이 불가결하다』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석유의 존도는 46%로 저하하게 된다.

### 環境과의 兩立目標

『지구규모의 에너지신조류에의 도전』이라는 부제가 의미하듯이 이번의 전망에서는 지구환경 문제, 에상을 웃도는 에너지수요의 증가 등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변화가 포함되어 『인간활동과 환경의 양립』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신전략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는 탄산가스에 의한 온난화 문제로 인해 화석연료소비에 대해 앞으로 더욱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여유와 풍요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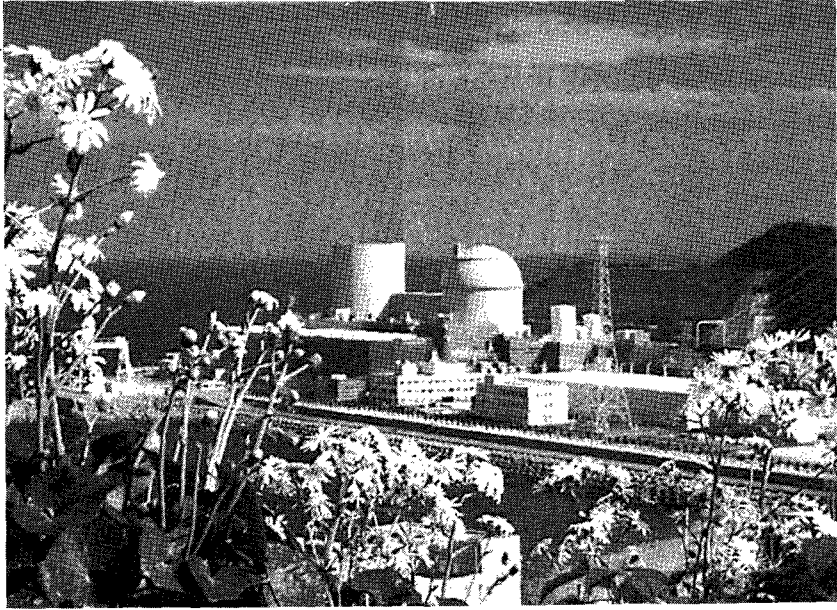
국민생활의 향상 등이 에상을 웃도는 에너지수요의 증가를 초래해 최근 2~3년간의 신장은 연율 5%를 웃도는 추세이고, 중장기적으로 2% 전후로 추이할 전망이다.

이번의 수급전망은 이러한 에너지정세에 입각하여 적절한 에너지원의 편성과, 그중에서도 환경면에 유리한 원자력개발규모를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것인가가 주목되었다.

수급전망에서는 수요면이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절약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2000년도 까지 연율 1.6%의 신장, 그 이후 2010년까지를 1.2%로 억제하는 한편, 공급면에서 환경문제를 포함해 비화석에너지의 중점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8년도 실적에서 4억8천2백만kW에서 2010년도까지 6억6천6백만kW로 공급능력을 높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원자력은 이 기간동안 설비용량의 배증을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의 3,038만kW에서 7,250만kW로 4,212만kW분을 신설(110만kW급으로 약 40기분)할 방침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시점에서 원자력의 1차에너지 공급점유율은 16.7%로 상승해 석탄의 15.5%를 앞질러 “석유대체에너지의 주축”으로서



위치지어졌다. 1987년에 제시된 종래 전망과 비교해 2000년 시점에서는 300만kW쯤 개발목표가 감소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피치의 개발 강화노선을 명확히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급피치의 개발노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책방향으로서 재처리, 폐기물 등 핵연료사이클의 원활한 추진, 안전확보기술의 강화확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널리 국민 각층에 대해 수용가의 입장에서 개방되고 일관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등 전국적인 『대화형 홍보』의 강력한 추진과 『전원지역 진흥책을 충실화시켜 입지점마다 자세한 홍보를 추진하는』등 입지촉진책의 강화방침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통산성에서는 이미 전원입지지역진흥에 대해 금년도에 『전원지역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신전략을 전개할 방침이며, PA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전략을 전개해 나갈 의향이다. 이밖에 태양열, 탄산전지, 코제네레이션 등 신에너지개발에도 전력을 다해 원자력중심의 비화석에너지가 2010년에 1차에너지공급 전체의 26.5%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절약대책도 중요한 항목이다. 쓰레기소각에 의한 폐열 등 아직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개발을 비롯해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추진해 2010년도까지 에너지소비의 GNP原單位(1차에너지공급/GNP)에서 36%의 개선을 할 것이라

고 한다.

### 着實한 需要增加 展望

이번의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은 앞으로 장기에 걸쳐 일본이 일정한 경제발전을 유지해 가는데 에너지면에서 중대한 제약을 가하지 말 것, 그리고 에너지소비에 관해 규제적 조치를 도입하지 말 것 등 두가지 전제조건하에서 그 달성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지만, 정부·민간이 에너지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할 목표로서 에너지수급의 본질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한 관심이 현저히 높아져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국내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왔는데, 이 문제에 일본이 대응함에 있어서 수급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長期에너지需給展望의 前提

○목표년도에 대한 견해

이번의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은 전회의 전망목표년도(2000년도)와는 달리 에너지정책의 기간과 지구환경문제 등 앞으로의 에너지정책과제에는 장기적인 것이 많은 점 등에서 새롭게 2010년도를 목표년도로 설정하기로 한다.

○수급전망과 관련한 사회 및 경제

일본경제는 앞으로 여유있는 국민생활의 실현 및 국제사회와의 조화추구를 목표로 한 내수위주의 경제운영하에 현재의 과제를 착실히 극복하면서 계속 건실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점차 안정적인 발전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국제석유정세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착실히 수요가 증대하는 한편, OECD제국에서 원유생산의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석유수급이 어려워지고 원유가격이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조에 따라 에너지면에서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2000年度 및 2010年度の 에너지需給展望

○에너지수요동향

①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에너지다소비형인 기초소재업종의 성장둔화와 철저한 에너지절약 노력 등에 의해 가공조립업종에서의 높은 신장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신장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민생부문

· 가정부문

세대수는 앞으로 인구의 증가율을 웃도는 건실한 신장이 전망된다. 그리고 세대당 에너지소비原單位는 주거면적의 확대,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한 냉난방수요의 증가, 가전기기의 보급, 기기의 대형화 등에 의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난방에 대해서

〈表1〉 長期에너지需給展望

項目	1988年度(實績)		2000年度		2010年度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1차에너지總供給	4.82億kℓ		5.97億kℓ		6.66億kℓ	
省에너지目標			6.0%		11.2%	
에너지別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新에너지等	620萬kℓ	1.3	1,740萬kℓ	2.9	3,460萬kℓ	5.2
水	860億kWh (2,030萬kW)	4.6	910億kWh (2,270萬kW)	3.7	1,050億kWh (2,620萬kW)	3.7
地熱	40萬kℓ	0.1	180萬kℓ	0.3	600萬kℓ	0.9
原子力	1,790億kWh (2,890萬kW)	9.0	3,300億kWh (5,050萬kW)	13.2	4,740億kWh (7,250萬kW)	16.7
天然가스	4,610萬kℓ	9.6	6,500萬kℓ	10.9	8,000萬kℓ	12.0
石炭	11,460萬t	18.1	14,200萬t	17.4	14,200萬t	15.5
石油 (그중 LPG)	2.76億kℓ (1,740萬t)	57.3	3.08億kℓ (2,200萬t)	51.6	3.06億kℓ (2,300萬t)	46.0
合計	4.82億kℓ	100.0	5.97億kℓ	100.0	6.66億kℓ	100.0

- (註) 1. 원유환산은 9,250kcal / ℓ에, 배럴환산은 6.29배럴 / kℓ에 의한다.  
 2. 신에너지 등의 난에는 태양에너지, 알콜연료, 흑액(필프액), 숯 등을 포함.  
 3. 수력의 발전전력량 및 설비용량은 일반 수력의 것.  
 4. LNG의 톤환산은 0.712톤 / kℓ에 의한다.  
 5. 석유의 난에는 오일샌드, 셀유를 포함.  
 6. 구성비의 각란 수자의 합계는 4사5입의 관계이며 100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 경제정세 및 에너지정세는 향후 유동적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본 전망에서의 수자는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폭을 두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는 구미선진국과 비교해도 아직 낮은 수준에 있고 기후조건의 차이를 고려해도 역시 확실한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본다.

#### · 업무부문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에 따라 업무용 사무실면적은 앞으로 착실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실면적당의 에너지소비原單位는 현재와 같은 정도로 추이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업무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③ 운수부문

여객수송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레저수요의 확대 등에 따라 수송량이 착실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울러 화물수송도 경제활동의 착실한 진전, 소비자의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소량·다빈도물류에 대한 수요증대 등에 따라 수송량의 착실한 증가가 전망되는 등 운수부문 전체의 에너지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④ 총괄

이상의 각 에너지수요부문의 동향을 총괄하면 국민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의 실현 및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2010년도를 위해 민생부문의 점유율은 착실히 증대해 간다. 한편 산업부문은 기술혁신 등을 주축으로 에너지과소비형으로 더욱 전환해 가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부문의 점유율을 증대시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수요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철저히 추구함으로써 에너지소비의 GNP原單位의 착실한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에 그 효과로서 2000년도 이후에는 수요의 신장은 둔화해 갈 것 같다.

이 결과 2000년까지의 수요신장은 연율 1.6%, 2010년까지가 1.2%다. 또 각 에너지수요부문의 수요를 합제한 2000년도 및 2010년도 최종 에너지소비의 총량은 각각 원유환산으로 약 3.95억kℓ 및 약 4.44억kℓ로 전망된다.

또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추진해 에너지소비의 GNP原單位(1차에너지공급량/GNP)는 연평균 2.0%의 개선, 201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두번의 석유위기를 포함한 1973년~1988년도 실적(선진국중 최고수준)에 필적하는 36%의 개선달성을 목표로 한다.

## 原電占有率 2.5倍로 增加

### 에너지 供給

#### ○에너지공급량

민생부문에서 未이용에너지(온도차에너지, 도시폐열 등), 태양에너지, 운수부문의 메타놀 등 신에너지는 최대한의 도입을 도모한 결과 견실하게 공급량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석유대체에너지의 주축인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최대한의 도입노력을 해 착실히 공급점유율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연가스는 화력발전용 연료, 연료전지연료 등으로서 공급량은 착실히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싼 가격, 계약형태의 경직성, LNG 화력발전이 서서히 피크공급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신장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석탄은 화력발전용 연료 및 산업보일러용 연료를 중심으로 당분간은 산업부문에서의 착실한 수요증대가 전망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제철용 원료 등으로 일정량의 의존이 전망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공급량은 대체로 현수준의 추이일 것 같으며, 공급점유율은 서서히 감소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또 석유는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은 대체로 현수준의 추이일 것이며, 석유의존도는 착실히 저감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각 에너지의 공급을 합제한 2000년도 및 2010년도의 1차에너지 총 공급량은 각각 원유환산으로 약 5.97억kℓ 및 6.66억kℓ가 될 전망이다.

#### ○비화석에너지의 도입

앞으로 정부 및 민간의 협력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지구환경보전대책 추진의 관점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때 비화석에너지의 범위는 환경부하가 적은

신에너지, 수력, 지열 및 원자력으로 하고, 2010년도에 1차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는 현상황(1988년도 실적 15%)의 약 2배인 27%로 전망한다.

그리고 비화석에너지는 국산 또는 준국산 에너지로 위치지어지기 때문에 일본에너지 대외의존도의 약 10%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 重點的 推進課題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의 관점에서 정부 및 민간의 협력하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① 신에너지 : 태양광발전의 적극적 도입 확대, 태양열 온수기의 도입 확대, 메타놀의 도입 등. 태양에너지는 설비비의 대폭적인 저하를 도모해 2010년도까지 단독주택의 약 반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규모까지 확대한다.

② 원자력 : 원자력에 의한 전기사업용 발전전력량이 쉰전기사업용 발전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의 27%에서 16% 올려 2010년도에는 43%의 점유율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LNG : 발전용은 2010년도까지 현재의 발전능력을 웃도는 규모의 설비를 신설. 도시가스 용에 대해서는 중소도시가스의 천연가스화 등으로 그 원료에서 LNG의 비율을 현재의 71%에서 85%로 상승시킨다.

그 결과 비화석에너지로서 CO<sub>2</sub>부하가 적은 신에너지, 수력, 지열 및 원자력 등이 2010년도 1차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는 현재(1988년도 실적 15%)의 약 2배인 27%로 전망된다. 그리고 비화석에너지는 국산 또는 준국산에너지로 위치가 설정되기 때문에 일본에너지 대외의존도의 약 10%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 展望에서의 主要 留意事項

#### ○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절약 및 비화석에너지도입에 관한 이상과같은 정부·민간의 최대한의 노력에 따라 에너지이용에 의한 일본의 CO<sub>2</sub> 총 배출량은 인구가 2000년도까지 7% 정도, 2010년도까지 4% 정도의 증가가 전망되는 점, 각종 대책의 보급·도입 등의 기간이 있는 점 등에서 2000년도까지

〈表2〉 에너지 需要展望 (最終에너지 消費)

(原油換算 億kℓ)

項目	1988年度		2000年度		年平均 신장률 1988~ 2000 (%)	2010年度		年平均 신장률 2000~ 2010 (%)
	億kℓ	構成比 %	億kℓ	構成比 %		億kℓ	構成比 %	
産業	1.73	53.2	1.94	49.2	1.0	2.06	46.5	0.6
製造業	1.47	45.1	1.64	41.5	0.9	1.73	39.1	0.6
民生	0.80	24.6	1.10	27.8	2.7	1.34	30.2	2.0
運輸	0.72	22.3	0.91	23.0	1.9	1.03	23.3	1.3
合計	3.25	100	3.95	100	1.6	4.44	100	1.2

- (註) 1. 산업부문은 제1차 산업 및 에너지 생산, 전환에 종사하는 업종(석탄광업, 석유·천연가스 광업, 석유정제업, 코크스제조업 등)을 제외한 제2차 산업을 말한다(단, 관리부문 및 자가용 운전은 제외).
2. 민생부문은 산업부문의 관리부문 및 전기사업, 가스사업, 운수업 등을 제외한 제3차 산업 및 가계소비부문을 말한다(단, 자가용 운수는 제외).
3. 운수부문은 운수업의 사업용 운수, 산업부문 및 민생부문의 자가용 운수를 말한다.
4. 비에너지수요(석유화학용 원료 등)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5. 원유환산은 9,520kcal / ℓ에 의한다.
6. 구성비의 각란 수자의 합계는 4사5입의 관계에서 100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는 16% 정도(연평균 1.2%) 증가하리라고 전망되지만, 그 이후 2010년에 가서는 거의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最大限의 原電 導入努力

#### 基本的 見解

앞으로 석유수급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자원재약의 顯在化가 우려되는 가운데에서 매우 취약한 에너지공급구조를 가진 일본에 있어서 앞으로 증대가 전망되는 수요에 대해 에너지의 안정공급, 즉 세큐리티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동시에 에너지의 수급에 있어서 일본과 세계와는 강하게 연동하기 때문에 이 과제의 실현이 세계 에너지세큐리티의 확보와는 밀접해야 한다는 인식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일본의 에너지수요는 증대경향에 있는 점, 화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에너지공급구조에 급격히 대폭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일본경제와 세계경제와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있는 점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확보하면서 인간활동과 지구환경보전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에서도 최대한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이용기술 선진국,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세계의

에너지분야에서 증대하고 있는 일본의 역할을 충분히 자각하여 일본의 국제적 책무로서 세계의 에너지세큐리티 확보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의 基本的 方向

이와 같은 견해에 근거하여 21세기 초까지의 기간을 과제극복을 위해 대응을 시작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위치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 따른 에너지정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① 국민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의 추구를 배경으로 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 고도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철저히 함으로써 에너지수요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한다.

② 세계의 에너지세큐리티 확보의 관점도 아울러 고려해 계속 석유의존도의 저감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비화석에너지(원자력, 신·재생가능에너지)에의 의존을 높인 공급구조를 실현한다.

③ 에너지분야에서의 정책협조,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그때 그 대상을 세계 각국으로 널리 확대함과 동시에 내용도 개별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관계 전반에 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국제공헌을 실현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의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지는 점, 자원 및

환경제약은 세계 및 일본국민 전체의 과제인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 및 그것을 근거로 한 일본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 및 각국의 이해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 適切한 에너지供給構造를 構築

일본의 에너지공급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각종 에너지원의 적절한 조합, 즉 적절한 에너지믹스에 의해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공급구조는 그 구성에 적절한 변경을 가함으로써 에너지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에너지믹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첫번째의 과제는 세계적인 석유수급의 어려운 흐름에 대응해 일본의 에너지세큐리티, 나아가서는 이것과 밀접한 세계의 에너지세큐리티를 확보해야 하며, 석유대체에너지의 도입을 추진하여 계속 석유의존도를 저감하는 것이다.

또 두번째의 과제는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CO<sub>2</sub> 배출량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자력, 신·재생가능에너지라는 비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한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을 위해 각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경제성, 환경부하, 도입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에 따른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 開放된 弘報가 重要

#### 에너지源의 導入上 課題克服을 위한 對策

각 에너지원의 도입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자금면과 체제면에서 소요의 정비를 도모함과 아울러 민간에서 대책시설을 위한 환경정비를 조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신에너지

① 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 연료전지의 저

렴화, 대형화를 위해 더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② 양산효과를 내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우선도입, 낙도의 모델, 지역에 있는 로칼에너지의 이용촉진 등 정책적으로 수요창출을 도모한다.

③ 연료전지, 태양전지 풍력발전 등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에 관한 제도상의 환경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 ○원자력

①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지구환경문제대책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 인식 등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에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감 확보를 도모함과 더불어 원자력발전소의 기수 증대, 운전년수의 장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규제체계의 충실, 제3자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안전확보 관련기술의 적극적 추진 등 안전확보대책을 더욱 강화·충실화한다.

② 전원지역진흥책을 충실화함과 아울러 입지 지점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원자력발전소 입지촉진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③ 재처리시설의 건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등 핵연료사이클의 확립을 목표로 원자력의 백엔드에 대한 불안감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증진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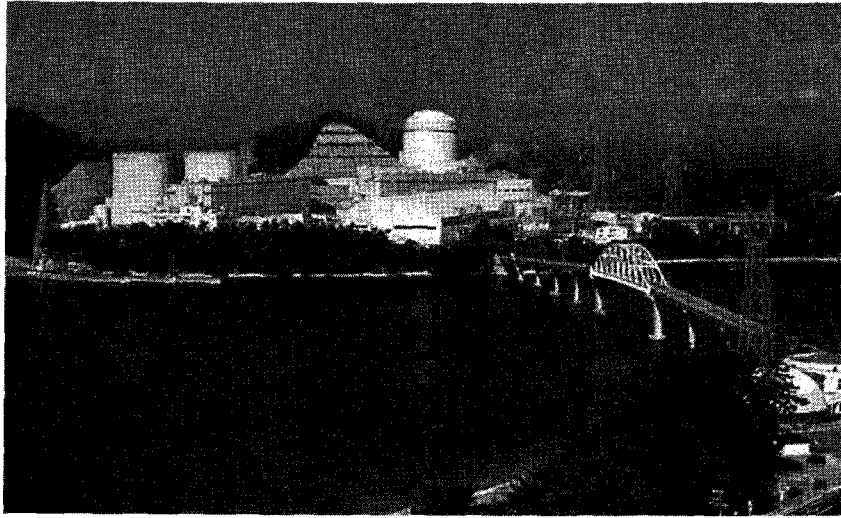
④ 원자력의 도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가기 위해 안전확보의 엄격한 유지 및 정보제공의 강화 등에 의한 투명성 확보 등에 의해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관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향상에 노력하면서 널리 국민 각층에 대해 개방되고 일관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정보발신능력의 강화와 정보의 제공·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중핵적 기능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폭넓은 국민 각층의 이해를 얻어가기 위해 불가결한 대중홍보활동을 한층 충실히 한다.

#### ○천연가스

① 계약형태의 탄력화에 노력하면서 새로운 가격형성의 구축 등에 노력한다.

② LNG船의 건조, 항만, 저장시설, 파이프라인망 등의 정비, 수송용 대체연료로서 메타놀로의 전환을 비롯한 신규용도의 확대, 지방도시가



스의 천연가스화 촉진 등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③ 지구환경문제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에서 한층 공급안정성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일본자본에 의한 국내외의 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한다.

○석유

① 석유산업의 자율적 활동촉진을 통해 그 구조개선을 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평상시에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한다.

② 일본과 산유국과의 사이에 시장메카니즘을 중시하는 기본적 생각에서 석유수급의 안정이 쌍방의 이익이 된다는 공통인식하에 우호·협력관계의 강화에 노력한다.

**에너지分野에서 國際協力の 積極的 推進을 目標**

석유 대소비국 및 대수입국으로서 산유국과 자원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정책협조 등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또 개발도상국 등에 대해서는 각종 에너지협력을 통해 경제발전·민생향상의 기반정비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성장 및 그에 따르는 에너지수요, 특히 석유수요의 대폭적인 증대 가능성, 일본과의 관계의 심도

등에서 중점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국제에너지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규모에서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협조를 제창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살린 원자력의 도입 촉진, 클린콜테크놀러지의 개발 등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도입 등의 면에서도 정책협조를 강력히 추진한다. 또 IEA를 통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각국의 대응 강화, 에너지절약 기술, 신에너지기술 등의 공동연구개발, 긴급시 체제구축 등을 수행한다.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자금력 및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① 과학적 지식의 해명, ② 에너지절약의 추진, ③ 클린에너지(원자력, 신·재생가능에너지 등)의 대폭 도입, ④ 혁신적 환경기술개발(CO<sub>2</sub> 고정화·유효이용기술 등), ⑤ 삼림보전 등 CO<sub>2</sub> 흡수원의 확대, ⑥ 차 세대를 담당할 혁신적 에너지기술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 장기적, 세계적 공동프로그램(『지구재생계획』)을 제창해 추진한다.

원자력에서 OECD, IAEA 등 다국간 및 2개국간의 안전분야를 포함한 다면적인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세계 각국 원자력관계자와의 연휴를 도모 하면서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원자력홍보활동을 전개한다.